

# 장성군, 내년도 국비 1천955억 확보...“발로 댄 노력 빛났다”

### 농촌협약·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국고사업 대거 반영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속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장성군이 2025년도 국·도비 예산 1천955억원을 확보하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국회, 주무부처, 전남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주요 국고사업으로는 ▲농촌협약(428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400억원)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114억원) ▲장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512억원) ▲농어촌보건의료 이전신축(253억원) ▲서삼·황룡 하수관로 정비(58억원) ▲월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7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36억원) ▲농업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건립(33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총사업비는 769억원으로 조정됐으며, 내년도 기본조사설계비로 7억2천만



김한중 장성군수가 국회와 주무부처, 전남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5년도 국·도비 예산 1천955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성군 제공)

원을 확보해 조기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비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130억원) ▲황룡전통시장 시설현대화(53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57억원)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조성(50억원) ▲대창동 공영주차장 조성(24억원) ▲상무평화공원 관광활성화(18억원) ▲부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7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장성호 관광지에 사계절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립야생동물원 조성 ▲목재친화도시 조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은 정부추경 및 2026년 국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900여 공직자와 함께 거둔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김문태기자

## 고흥군, ‘도심항공교통’ 비행시연 성공

### 수직 이착륙 항공기 시스템 사용 미래 교통 상용화 가능성 확인

고흥군이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연을 통해 미래 항공 교통수단의 안정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2024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전영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차동차국장, 산학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은 도심 내에서 사람과 화물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전기 동력의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를 사용하는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UAM 드림팀(SKT, 한화시스템, 한국항공공사)이 미국 조비에비에 이선 기체 S4를 활용해 세계 최초 통합 실증을 선보였다.

시연에서는 S4 기체가 약 20분간 안



고흥군이 지난 14일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2024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연’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비행시연 기체 S4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흥군 제공)

정적으로 비행했으며 기체, 배터리, 교통관리시스템 등 도심항공교통 운용에 필요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고흥군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서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 ▲비행시험장 안전성 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비행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항공산업 주도권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에는 국내 최초 도심항공교통(UAM) 배터리와 실증 시설이 조성돼 있고 지난 11월에는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계획에 맞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홍필 기자

## 담양군, 수도요금 전자 고지서로 일부 전환

### 지로 고지서 누락 문제 해결·효율성 ↑

담양군 물순환사업소는 17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수도요금 고지서 서비스인 ‘과세 알림톡 서비스(사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세 알림톡은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지로 요금 고지서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 과세 알림톡을 신청한 수용가정은 현재까지 1천500가구이며, 담양군은 내년 1월까지 모든 수용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디지털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취약계층은 기존과 같이 지로 고지서를 유지한다.

과세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한 한 주민은 “기존 지로 고지서와 달리 언제



어디서든 요금 고지서를 볼 수 있어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김용희 물순환사업소장은 “전자 고지서로의 전환이 군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탈바꿈

### 23일 개관...책방·교정역사 전시관 등 조성

장흥군이 유희공간으로 남아 있던 옛 장흥교도소 부지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23일 옛 장흥교도소 교회당에서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개관식’을 개최한다.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기능을 상실한 장흥교도소 시설을 문화예술 교류공간, 교도소 체험공간, 영상촬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유희공간 문화재 사업이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유희공간 문화재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03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옛 장흥교도소 건물 6동을 리모델링해 ▲영화로운 책방 ▲글감옥 ▲접견체험장 및 장흥교도소 아카이브 ▲교정역사 전시관 등 독창적인 전시물을 조성했다.

장흥군은 개관 즈음에 법무부 교정조성사업은 기능을 상실한 장흥교도소 시설을 문화예술 교류공간, 교도소 체험공간, 영상촬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유희공간 문화재 사업이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내용을 담았다. 한국영상자료원과 협약은 영화로운 책방에 지역미디어라이브러리를 구축해 한국 고전영화와 영화대본, 시나리오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관식에서는 축하공연, 경과보고, 문화예술 복합공간의 새로운 이름 ‘빠빠용Zip’ 비전 발표, 상패 수여,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이어 식후 행사로 테이프커팅과 시설 관람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성장흥군수는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프리즌호텔,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홍=노홍렬기자

## 정기명 여수시장 ‘탄핵 정국...민생 안정 최우선’

### 긴급회의 개최...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집중 추진 주문

정기명 여수시장이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긴급회의에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 지역경제, 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등 지방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 ▲지역 체감경기 회복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적극적 예산 집행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등 누수 없는 복지사업 추진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사고 대비 태세 확립 등의 대책

이 논의됐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정기명 시장은 “탄핵 정국으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여수시는 산단 경기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다”며 “민생안정 대책반을 중심으로 카드형 지역상품권 발행과 예비비 활용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곡성군, 道 투자유치 종합평가 최우수상

### 양수발전소 유치·농공단지 1조4천억 투자유치 성과

곡성군은 “최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남 일자리·경제한마당 행사’에서 투자유치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여건 조성, 행정 지원 등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곡성군은 고금리와 고물가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농공단지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며, 전남 최초 물류비 및 월세 지원 등의 우수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와 농공단지에 1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달

성하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곡성군은 투자지원제도 개정, 맞춤형 인센티브,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



곡성군 투자유치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기념식 모습. (곡성=김영필 기자)

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 정책을 펼쳐왔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군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투자유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윤공농공단지에도 전략적 투자유치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흥군이 옛 장흥교도소 건물 6동을 리모델링해 영화로운 책방, 글감옥, 접견체험장 및 장흥교도소 아카이브 등의 전시물을 조성, 오는 23일 개관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옛 장흥교도소 전경 및 내부 모습. (장흥군 제공)

## 화순군,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 본격 출하

### 매일 1t ↑...로컬푸드·대형마트·도매시장 등에 공급

화순군은 “최근 도곡농협 공선회에서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사진)를 공동 선별하기 시작해 본격 출하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순 딸기는 매일 1t 이상 ▲로컬푸드 35% ▲이마트·롯데마트 등 인근 대형마트에 35% ▲도매시장·직거래 30% 비율로 출하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올해 출하는 육묘기인 5월부터 9월 정식까지 지속된 고온으로 전년 대비 꽃눈분화도 약 2주 늦어져 출하 일



정이지연됐다.

또한 육묘 과정 중 고온 피해로 모종의 고사율이 30% 이상으로 많았고, 모종에 발에 심은 후에도 고온에 의한 시

들음병 발생이 증가해 전년 대비 화순 딸기의 수확량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화순 딸기는 현재 화순군 31농가, 15.1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화순 지역 농가들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전직을 활용한 해충방제 ▲이산화탄소 별도 공급 ▲꾸준한 컨설팅 교육을 통한 재배 기술 향상 등의 노력과 GAP인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여름철 폭염과 늦가을까지 지속된 고온으로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가 크다”며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시설 온도 저감, 효과적인 환경제어 방안 제시, 병해충 방제 등의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화순=이병철기자